

싸워서 이기는 인항인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오,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나는 빅톨 위고의 이 말을 졸업하는 인항인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고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은 사회라는 거대한 상대를 만나게 된다. 영어에서는 졸업을 코멘스먼트(Commencement)라고 하는데, ‘시작이다.’는 뜻이다. 결국 인생은 졸업이 없는 학교인 것이며, 졸업은 사회라는 학교에 재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부단히 싸워야 하는 분투와 노력의 과정이다. 인생의 패배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나의 게으름, 무책임, 비겁, 박지약행(薄志弱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인생의 영광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졸업하는 인항인에게 앞으로의 인생과 사회와 싸워 이기기 위해 세 가지의 지혜를 알려 주고자 한다.

첫째는 자기의 실력과 분수에 맞는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다. 율곡(栗谷)선생은 젊은이에게 저마다의 인생의 높은 뜻을 세워야 한다는 입지(立志)를 강조했다. 나의 능력을 잘 살릴 수 있는 동시에 가치창조(價値創造)를 할 수 있는 큰 목표와 이상(理想)을 여러분은 먼저 세워야 한다.

둘째는 인내와 노력의 덕(德)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위대한 것, 모든 가치있는 것은 피땀의 결과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고 뿌린 것을 추수한다. 노력의 씨를 뿌린 자는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태의 씨를 뿌린 자는 실패와 불행의 결과를 거둘 것이다.

교감 민 병 준



셋째는 내가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봉사(奉仕)하는 보람을 찾으라는 것이다. 보수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을 봉사(奉仕)라고 한다. 봉사는 인간이 타인에게 가질 수 있는 태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태도다. 여기에 봉사의 높은 차원이 있으며, 그것은 넓은 마음의 표현이요, 순수한 심성(心性)의 선물이다. 봉사에 있어서는 봉사 그 자체가 하나의 보수다.

봉사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봉사를 보시(布施)라고 일컫는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베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누구나 봉사적 인생(奉仕의 人生)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남에게 따뜻한 말을 보내고, 부드러운 미소를 던지고, 작은 마음의 정성을 쏟을 때 우리의 생활은 기쁨과 만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주는 손은 복(福)이 있는 손이다. 남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고마운 일이라.

지금까지 나는 졸업하는 인향인 여러분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알려 주었다. 인생은 노력하지 않고 쉽게 살려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많은 시간과 왕성한 생명력과 풍부한 기회와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이 소중한 자신과 앞에서 말한 나의 세 가지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고 발휘하여 앞으로 전개될 인생과 사회의 거대한 풍랑과 맞서 싸워 이기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